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혼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더 선명하게”…삼성-LG ‘TV 2차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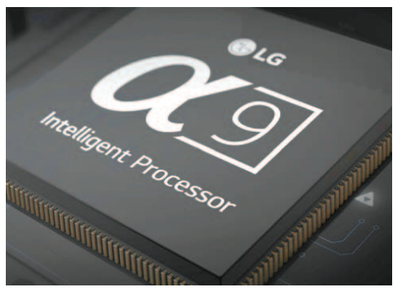
평창올림픽·월드컵 등 몰려 수요증대 예상
9일 美라스베이거스‘CES 2018’서 대격돌
삼성, UHD보다 4배 선명한 8K로 승부수
LG는 AI·독자개발 고화질칩 ‘알파9’ 맞불

IT

국내 TV 제조사들의 대형 TV 경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가전전시회 ‘CES 2018’(Cunsumer Electronics Show 2018)에서 새로운 대화면 TV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화질을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기술 등을 적용하는 한편 초고화질(UHD)보다 4배 선명한 ‘8K’ 경쟁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스포츠 빅이벤트 등으로 대형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면서 차세대 화질 기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국내 TV 제조사들이 화질을 선명하게 해주는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공개하는 등 대형 TV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LG전자가 2018년형 OLED TV에 장착한 독자 개발 화질칩 ‘알파9’.
사진제공 | LG전자

먼저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저해상도 영상을 8K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주는 85인치 8K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를 공개한다. TV에 저화질 영상이 입력되면 TV 스스로 밝기·블랙·번짐 등을 보정하는 필터를 운영해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을 비교해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 시 발생하는 계조(명암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손실 없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다.

음향 역시 사용자가 따로 기능 설정을 하지 않아도 영상 특성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화해준다. 스포츠 경기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배경의 관중 소리를 높이고, 콘서트 장면 등 음악이 나오는 영상에서는 저역대 소리를 강조해주는 식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적용된 8K QLED TV를 하반기에 65인치 이상 대형 제품을 중심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AI 플랫폼 ‘딥씽큐’가 탑재된 2018년형 TV 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주요 모델의 경우 독자 개발한 화질칩 ‘알파9’을 장착해 눈길을 끈다. 알파9이 적용된 OLED TV는 기존제품에 비해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명암비와 선명도, 입체감 등도 개선해준다.

4K 해상도의 HDR(High Dynamic Range) HFR(High Frame Rate) 영상도 지원해 화면 끌림 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HFR로 제작한 영상은 초당 화면 수가 최대 120장으로 대부분 초당 24장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와 비교해 5배나 많다. 달리는 육상선수의 빠른 발도 뭉개짐 없이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이번 CES에서 8K 화질의 88인치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오픈한 미샤 매장을 찾은 현지 고객들과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연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매장 내부 전경. 미국 뉴욕에 오픈한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현지 고객들(왼쪽부터). 뷰티업계가 중국 외에 북미, 유럽, 중동, 남미 등의 해외 시장 공략에 힘쓰는 글로벌 전략 재편에 나섰다.
사진제공 | 미샤·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차이나 리스크’에 놀란 뷰티업계 “가자! 글로벌로”

중국 중심전략 한계…시장다변화 분주
아모레퍼시픽, 중동 유럽 남미시장 눈독
LG생건 잇츠한불 토니모리도 글로벌화

뷰티

뷰티업계가 2018년 ‘탈중국’을 통한 글로벌 전략 재편에 일제히 나섰다. 업계는 지난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전략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시장 전략을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뷰티업계가 경쟁적으로 북미, 유럽, 중동 등에 잇따라 신규 진출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가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 단독 매장을 열고, 이니스프니가 미국 뉴욕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 게 대표적인 경우다. 또 토니모리는 독일 최대 유통 채널이 두글라스의 450개 매장에, LG생활건강 빌리프는 미국 드럭스토어 체인 세포라에 각각 입점했다.

올해 역시 미샤가 새해 벽두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매장 2개를 동시 개점하는 등 시장 다변화의 글로벌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주요 뷰티업체 수장들의 신년사에서도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글로벌 확산’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거론하며 중동, 유럽, 남미 등 신규 시장 탐색을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해 국가별 브랜드 확산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사업의 운영 효율성 등을 개선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도 글로벌 사업을 강화해 ‘아시아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 부회장은 “아시아의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환경 변화에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화장품사업의 럭셔리 성장 및 프리미엄 경쟁력 강화, 생활용품사업의 차별화된 제품을 통한 해외사업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토니모리는 올해 경영방침을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과 성장’으로 정했고, 잇츠한불은 ‘글로벌 코스메틱 컴퍼니로의 도약’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사드 리스크를 통해 뷰티업체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한 점은 긍정적 기류”라며 “개별 브랜드를 경쟁력으로 삼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박정호 SKT사장 CES서 5G협력 나선다

삼성 LG 등 5G선도기업과 협력 논의
AI IoT 부스 찾아 비즈니스 모델 구상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이 9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에서 5G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인텔, 퀄컴 등 5G 선도기업 부스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단말과 장비, 서비스 개발 등 5G 상용화를 위한 협력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장은 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부스가 모인 전시장을 찾아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와 혼다, 다임러, 중국 전기차 브랜드 바이튼 부스 등 자율주행 분야 기업들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박 사장은 “4G까지는 기존 유선 서비스가 무선화 되는 과정이었지만 5G는 오프라인 세상 자체가 무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네트워크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해 5G를 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이스타항공, 日규슈 오이타 신규 취항

LCC(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은 17일 일본 규슈 오이타에 신규 취항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가고시마, 미야자키에 이어 이번 오이타 취항으로 후쿠오카현,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등 규슈지역 4개 현에 노선을 확보하게 됐다. 이스타항공 고객들은 앞으로 규슈지역 여행 시 출발편과 귀국편의 공항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지역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오이타 취항을 기념해 4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규슈 지역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예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본 규슈 퀴즈 이벤트를 통해 오이타 왕복항공권, 이스타항공 모형항공기, 커피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번 신규취항으로 이스타항공은 인천-오이타, 인천-미야자키, 인천-가고시마, 인천-삿포로, 인천-도쿄(나리타), 인천-오사카(간사이), 인천-오키나와, 인천-후쿠오카, 부산-오사카(간사이) 등 일본 지역에 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포켓닥터’,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 돌파

KT IS는 7일 병원, 약국, 동물병원 통합 검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포켓닥터’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포켓닥터는 국내 최대 데이터베이스와 상세한 맞춤검색 기능으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출시 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 서비스 도입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전문의들로 구성된 주치의와의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오픈했고, 이달 중에는 병원 예약 접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KT IS는 100만 다운로드를 기념해 앱을 실행해 ‘축하댓글’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영화예매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김명근 기자



이대훈 농협은행장, 소통 경영 강화

이대훈 신임 NH농협은행장이 5일 본점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십 경영(사진)을 실시했다. 격의 없는 인사를 시작으로 일일이 직원들의 손을 잡고, 사원증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의 뜻을 물어보는 등 친근감 있는 소통을 했다.

이대훈 신임은행장은 농협 내 대표적 영업통 CEO로서 지점장, 본부장 시절부터 직원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해왔던 ‘이대훈식 소통경영’의 일환으로, 소탈하고 격의없는 모습에 직원들의 호응도 좋다고 전해진다. 이 행장은 “앞으로 일선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식사 또는 호프데이를 함께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일~5일

코스피지수	2497.52	▲	+17.87
코스닥지수	828.93	▲	+16.48
日 닛케이 지수	2만3714.53	▲	+949.59
中 상하이 종합	3391.75	▲	+41.1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0	▼	-0.04
환율 (원 · 달러)	1064.50	▲	+2.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056.88	▲	+310.96

지수는 5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이건희 회장, 9일 병상서 76회 생일



와병 중인 이건희(사진) 삼성 회장이 9일 76회 생일을 맞는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인 이건희 회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삼성측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별히 건강상태에 악화되거나 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생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및 전체 실적 발표일과 같다. 또한 삼성전자의 최대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인 세계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도 이날 개막한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다. 이번이 병석에서 맞는 이 회장의 네 번째 생일이다.

삼성은 과거 임직원들이 사내 매체를 통해 쾌유 기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특별한 행사가 잡혀있지 않다.

비즈 TALK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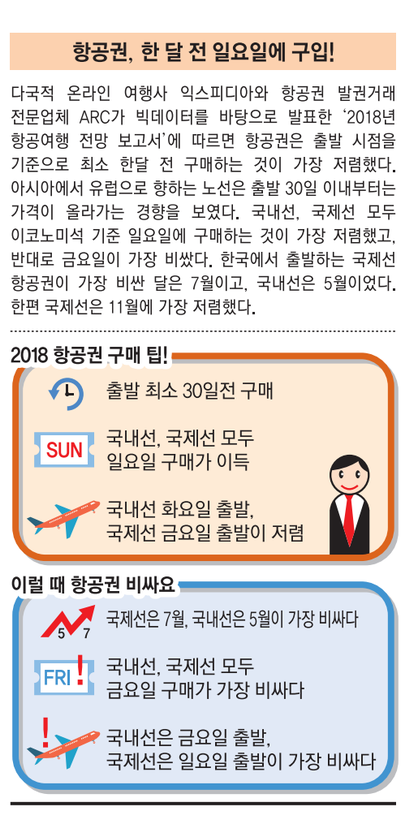
● **“압도적 성과 보여주자”**(위성호 신한은행장, 5일 임원 및 본부장 등 90여 명이 참가한 2018년 상반기 워크숍에서 “올해는 디지털 원년”이라며 2월 선보일 슈퍼앱으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며)

●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저 美무역대표부 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차 미국 워싱턴에서 첫 만남 이후 각각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 경제

항공권, 한 달 전 일요일에 구입!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와 항공권 발권거래 전문업체 ARC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2018년 항공여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권은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은 출발 30일 이내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이코노미석 기준 일요일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고, 반대로 금요일이 가장 비쌌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이 가장 비싼 달은 7월이고, 국내선은 5월이었다. 한편 국제선은 11월에 가장 저렴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